

**발족 기자회견**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발족식

**- 미디어를 시민의 품으로 -**

---

일시 : 2012년 2월 13일(월)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 개회선언 / 참석자 소개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경과보고, 조직체계 및 활동 계획 발표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 참가자 발언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황대준 한국 PD연합회장
  -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김철관 한국인터넷 기자협회장
  -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 모임 고문
- 사업계획 발표
  - 정책 공약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 후보 검증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언론모니터 - 장지호 언론노조 정책국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 안동현 진실을알리는시민들 대표

## 1. 19대 총선미디어연대 경과보고

- 2월 1일(수), 19대 총선대응을 위한 미디어 연대기구 결성 결의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10개 언론단체는 19대 총선대응을 위해 연대 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제 시민사회단체에 제안하기로 함.
- 2월 7일(화), 시민사회단체에 (가칭) 19대 총선미디어연대 결성을 제안함.
- 2월 9일(목), (가칭)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준비모임 진행  
: 조직 명칭을 <19대 총선미디어연대>로 확정하고, 13일(월) 오후 2시 대표자 회의, 오후 3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함.  
: 19대 총선에서 제안할 미디어정책과 공약을 논의하기 위해 2월 중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산하에 정책공약팀/후보검증팀/언론모니터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 2월 13일(월), 19대 총선미디어연대 대표자 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개최

## 2. 조직구성

- **고문 단체 추천 (대표자 회의결과)**
  - 새언론포럼
  - 언론광장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언론지킴이 천주교 모임
- **공동대표**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 황대준 한국PD연합회장
-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 우상표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
- 안동현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대표
- 정인섭 민주전역시민회 대표
- 김영은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대표
- 추가 구성 예정

● **집행위원회**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사업 기획과 집행을 위해 각 참여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주1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집행위원장 :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 **공동사무처**

-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각 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사무처를 구성하기로 함.
- 19대 총선 미디어분야 현안에 대한 논평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
- 대변인 :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 **정책공약/후보검증/언론모니터 위원회**

1) **정책공약 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현업단체, 언론학계 등 19대 총선 정책/공약 수립

을 위한 팀 구성

- 정책토론회 개최, 총선 미디어 10대 정책·10대 공약발표
- 정책 토론 사이트 구축 - 진보넷
- 정책공약 위원회 위원장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 2) 후보검증 위원회

- 후보검증 기준마련, 공개질의, 검증·평가 결과발표
- 후보검증 위원회 위원장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 3) 언론모니터 위원회

- 주요주제, 현안별 총선보도 모니터
- 총선보도 토론회 개최 (총선 보도방향/여론조사/주요정책 모니터결과 등)
- 언론모니터 위원회 위원장 : 윤용관 언론노조 부위원장

# 3. 사업계획

## ◎ 목표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정책 공약화
- 미디어정책 관련 후보검증
- 바람직한 총선보도 프레임 제안
- 총선관련 언론보도 모니터

## ◎ 사업계획

### [1] 19대 총선미디어연대 대표자회의 및 발족 기자회견

일시: 2012년 2월 13일(월) 오후 2~3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2] 정책공약 위원회

#### 1)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총론과 새 패러다임 제시
- 이용자/수용자 의제, 규제/진흥 의제, 방송 의제, 주춧돌미디어 의제 대안
- 청산해야 할 MB의 미디어 : 종편PP, 언론장악, 방송통제기구, 미디어랩, 정수장학회 등
- 미디어 시민의 품으로 : 시민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보편적 접근권, 이용자 자율적 선택권 등

## 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공약 제안

- 19대 총선 10대정책 10대공약 발표
- 공약 실현 (예비)후보 검증 및 지지

## 3) 정책논평 발표

- 총선 시기 일일 정책논평 발표

## 4) 시민정책 토론 사이트 구축

- 별첨

## 5) 정책토론회 및 공약발표 세부계획 (예정)

### 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차 정책토론회

- 제목 : 19대 국회, 바로 세우는 미디어 정책
- 일시 : 2012년 2월20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 주관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 <제1부> 표현의 자유 (1:00-1:30)

- 사회 : 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
- 발제 :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박경신)
- 토론 : 섭외중

<제2부> 민주적 규제/진흥 (2:40-4:10)

- 사회 : 김승수 전북대학교 교수
- 발제 :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토론 : 섭외중

<제3부> 청산해야 할 MB의 미디어 (4:20-5:50)

- 사회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발제 : 최영목 성공회대학교 교수
- 토론 : 섭외중

②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 내용 :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10대정책/10대공약 발표

[3] 후보검증 위원회

○ 시기별 사업계획(안)

2월 - 바람직한 후보자 기준 마련

검증대상 선정 (총선 입후보자 중 문방위 소속으로 활동 가능한 자)

검증기준 마련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

시민의 언론권 수호의지, 정권 및 언론권력에 맞설 투지)

3월 - 미디어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

공개질의서 전달

공개질의서 수렴 후 후보검증결과 발표

주요후보 검증 토론회 개최

[4] 언론모니터 위원회

○ 불공정보도 감시

- 주요주제, 현안별 총선보도 모니터
- 불공정보도 규탄 논평 및 기자회견 등 개최

○ 총선보도의 올바른 방향 제시

- 총선보도 토론회 개최

: 총선보도 프레임 제안, 여론조사, 주요정책 보도방향 분석 등

[5] 주요사업일정

월	활동 계획	내용
2월	제안서 회람 및 취합(6일~12일)	제 시민사회단체
	발족 기자회견(13일)	
	토론회 1	총선보도 방향제안
	토론회 2/3	정책 공약 관련
	19대 총선 미디어정책 공약발표	기자회견
3월	미디어현안 후보자 공개 질의	취합 후 발표 기자회견
	후보자 검증 및 추천	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4	모니터 및 총선보도 진단
4월	토론회 5	19대 국회에 바란다



## 4. 발족선언문

### 19대 총선미디어연대를 발족하며

4월11일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총선 미디어연대는 19대 총선을 앞둔 시기 정권을 심판하는 시민과 함께 총선 승리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시민과 미디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미디어 대안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과 저널리즘을 탄압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켰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쥐어주고 특혜를 쏟아 부었으며, 시민의 동의없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미디어랩 제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방통위는 시장만능 정책을 펼쳐 모든 방송사업자들을 시장으로 내몰았고, 방송사업자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 자사랩을 추진하는가 하면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볼모로 한 재전송 협상의 추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과잉 심의로 저널리즘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진원지로 자리잡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민주주의 압살 준동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4대강이 파헤쳐진 것처럼 황폐화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19대 국회는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 구성과 역할에 최우선의 공을 들여야 한다.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을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선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민사회와 미디어 당사자와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준비된 내용과 계획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한다.

총선미디어연대는 시민사회와 19대 총선에 임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물만 바뀐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대의하는 주체와 직접 당사자간 결합을 높여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 모순과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미디어 법제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하나. 총선을 앞둔 시점, 전국 각 지역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시민사회의 동의속에 전략적으로 응원할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준비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응원할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낙천, 낙선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나. 총선 시기 저널리즘의 복원과 소셜네트워크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의기투합, 그리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프레임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19대 총선미디어연대

## 5.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참가단체 (2월 13일 현재, 무순)

언론개혁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 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 환경운동연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민주전역시민회,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참가단체는 현재 계속 취합 중)